

# 시험출제 교사가 맡기엔 역부족...문제은행 방식 도입해야

## 시험문제 베끼는 교사들

### <하> 근절 대책

광주지역 고교 교사관리 실태는 이미 여러 차례 도마에 올랐다. 학부모, 전문가, 시의회까지 나서 솔하게 부실한 평가 체계, 교사의 전문성 결여 등 내신 관리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되풀이 되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이 광주시에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부실한 교사관리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난다. 최근 3년세(2017~2019년) 광주지역 67개 고등학교 중 62곳(92%)에서 무려 484건의 재시험이 치러졌다. 부실 출제 때문이었다. 한 고등학교에서는 지난 2018년 한 해에만 무려 15건의 재시험이 치러질 정도로 교사 관리가 엉망이었다.

지난 7월 광주 모 고교 시험지 해킹사건 조사과

광주 고교 최근 3년 484건 재시험  
교육청 공동 문제서 골라 쓸수있게  
교원연수 전문성 강화 방안도 시급

장에서 담당 교사가 생명과학 과목 시험에서 무려 4개 문항을 잘못 출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10월에는 광주의 사립고교에서 '독서' 교과 시험 출제를 맡은 교사가 사실 문제은행 사이트에서 26문항 중 13문항을 베껴 출제하는 황당한 사례가 발생했다.

시교육청은 문제가 드러날 때마다 교사 역량강화, 지도감독 내실화 등 예방책을 내놓았지만 교단은 요지부동이다. 급기야 교사가 타 기관의 시험문제를 노골적으로 베끼는 등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하는 행위를 저지르는 지경이 됐다. 이번에도 시교육청은 맞춤형 평가 연수 의무화, 학교·학년 단위 평가 역량 제고 교원 연수 의무화, 출제 역량 강화 연수 강화 등 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교육당국의 뻔한 대책

만으로 교사관리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 있는 단계를 넘었다고 진단한다. 교사 관리 문제를 학교와 교사에게 맡기는 현행 정책을 손질해야 할 때가 됐다는 것이다. 더 이상 공교육이 무너지는 것을 방관해서는 안된다고 입을 모은다.

현행 출제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문제은행식으로 바꾸는 방안이 거론된다. 시교육청이 주관해 교사들이 문제를 미리 만들어 놓고 시험 시기에 따라 문제를 선택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출제와 검토에 시간을 구애 받지 않아 오류를 줄이고 공정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광주교대의 한 교수는 "시험 문제 출제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험문제 베끼기와 부실 문항 출제가 반복된다는 것은 교사들이 시험출제를 맡기에 역부족이라는 신호"라며 "교사관리를 학교, 교사에 맡길 게 아니라 시교육청 차원에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시교육청 주관으로 교사들이 공동출제해 우수 문항을 골라내고 교사, 학교가 문항을 선택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제은행 출제 방식을 도입하되, 단계적으로 이행하는 방안도 제시된다.

지역 사립대학의 한 교수는 "중간고사는 학교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기말고사만이라도 문제은행 방식을 채택하는 방안도 가능하다"며 "이젠 국가, 교육청이 나서 고교 내신 문제를 다뤄야 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광주 고교 교사들의 각성이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교육력을 강화하고 전문성을 회복하는 등 본분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외부 기관이나 사설 입시업체의 문항을 베끼는 것은 교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부끄러운 일이라는 각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심지어 이번엔 문제가 된 교사는 학생들이 주로 보는 'EBS 수능 특강'에서 문제를 베끼는 등 무감각과 무성의를 드러냈기 때문이다.

한국교육정치학회장을 지낸 한 교수는 "1990년대 수능이 도입됐을 때 고교 교사들이 중간·기말고사에서 수능형 문제를 출제할 역량이 부족해 사설 학원 문제를 베끼는 사례가 있었다"면서 "아직까지도 교사들이 시험문제를 베끼는 중대 범죄를 저지

르고 교권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태를 보여 개탄스럽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교육청에서 진행한 교사 전문성 강화 연수 등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분석도 제기됐다. 그동안 시행한 교육청의 시책이 현장에서 겹칠고 있어서다.

사립학교 수확담당 교사를 지낸 한 퇴직교사는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연수를 지금까지와 달리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다. 현행 방식으로 문제가 있다는 것이 결과로 드러난 만큼 교육청에서 지금까지 시행한 교원연수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교사들의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입학 관리처장을 지낸 수도권의 한 교수는 "문제 베끼기는 특정 학교나 교사에 국한한 문제가 아니라 광주 고교교육을 불신하는 악영향을 초래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내신성적을 의심받는 특정 지역 학생들이 입시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주 북구 운암1동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동행정복지센터 직원들과 통장단들이 19일 오전 모래와 염화칼슘을 뿌리며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

## 사흘동안 최고 20cm 눈...광주·전남 325개 학교 등교시간 늦춰

### 눈길 낙상·교통사고도 잇따라

광주·전남에 3일 동안 최고 20cm 눈이 쏟아지면서 325개 초·중·고·특수학교가 잇따라 등교 시간을 늦췄다.

18일 광주시교육청과 19일 전남도교육청이 잇따라 비상회의를 열고 폭설에 대비해 학교(기관)장 재량으로 등교 시간을 조정하라고 권장한 데 따른 조치다.

1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광주지역 초등학교 37곳, 중학교 71곳, 고등학교 48곳 등 총 156곳이 평소보다 1시간씩 늦춰 등교했다. 광주시에서 휴업이나 원격 수업을 한 학교는 없었다.

전남도교육청은 전남지역 초등학교 70곳, 중학

교 65곳, 고등학교 32곳 등 총 167곳이 등교 시간을 1시간씩 미뤘다고 밝혔다.

특수학교인 함평영화학교는 재량휴업을 했으며, 신안 입자중고는 원격 수업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방파길 미끄러짐·낙상 사고도 잇따랐다.

광주소방본부는 눈이 내리기 시작한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낙상사고, 교통사고 등으로 총 65차례 출동했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3건, 낙상사고 51건이 접수돼 44명이 병원으로 이송됐다. 또 고드름을 제거하거나 눈길에 고립된 차량을 구호 조치하는 등 안전조치도 11건 이뤄졌다.

19일 오전 7시 30분께부터 동구 급남로·학동, 남구 봉선동, 북구 오치동·풍향동·두암동 등 광주 곳곳에서 "눈길에서 넘어져 다쳤다"는 신고가 잇따라

접수됐다. 19일 오전 8시 50분께 광주시 동구 선교동 신너릿재터널(화순 방면) 입구 부근에서는 승용차 3대가 연속 추돌하는 사고가 났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앞서 18일 오후 1시 20분께 광주시 동구 용산동 제2순환도로 지원교차로 인근에서는 A(29)씨가 운전하던 승용차가 눈길에 미끄러져 앞서가던 차량과 가드레일을 잇따라 충돌했다.

광주지방기상청에 따르면 17~19일 3일 동안 최심적설량은 무안 해제면 20.4cm, 신안 압해도 19.3cm, 광주시 남구 18.8cm 등을 기록했다. 기상청은 오는 21일 광주·전남에 5~10mm의 비 또는 눈이 오고, 22일부터 3일 동안 연달아 눈이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양금덕 할머니 서훈 취소 이유 밝혀달라"

### '시민모임' 외교부에 질의서

광주의 한 시민단체가 외교부에 양금덕 할머니에 대한 서훈 취소에 관해 질의서를 보냈다.

(사)일제강제동원 시민모임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외교부는 양금덕 할머니의 대한민국 인권상과 훈장 추천에 제동을 건 진짜 이유를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단체는 외교부에 '근로정신대 동원 피해자 양 할머니에 대한 대한민국 인권상, 국민훈장 서훈 무산과 관련 질의서'를 접수했다.

질의서에는 ▲서훈이 무산된 사례가 단 한 차례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는데, 외교부가 다른 부처 사례를 언급해 처음이 아니라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지난 15일 외교부가 밝힌 "다른 피해 할머니들과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 인권상 수상을 보류했던 것"이라는 점에 대해 외교부가 양 할

머니를 포함해 피해자 3명 모두 인권상 및 국민훈장 포상자로 인권위에 추천할 의사가 있는지 ▲외교부도 양 할머니 수상 자체에 불만이 없다는 입장에 대해 지금까지도 관련 협의 절차를 진행해 국무회의의 안건에 상정시킬 의사가 있는지 ▲올해 추진이 어렵다면, 외교부가 직접 내년엔 양 할머니를 '대한민국 인권상'과 '국민훈장' 포상 대상으로 추천할 의향이 있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

단체는 "양 할머니의 서훈의 이유는 피해자의 한사람이거나 처지가 딱해서가 아니라 지난 30년간 일본 정부가 벌인 반인륜 범죄를 고발하고 인권회복을 위해 걸어온 끈기와 의지를 가진 투쟁의 상징적인 존재라는 점에서"면서 "외교부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다른 피해자와의 형평성을 운운하지 말고 진정한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민현기 기자 hyunki@kwangju.co.kr

## 광주 서구 빌딩 5층서 타일 뒤틀림 대피 소동

### 붕괴·인명 피해 없어

광주 서구의 한 빌딩에서 '건물이 무너지는 것 같다'는 신고가 접수돼 입주자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일어났다.

광주서부소방 등에 따르면 19일 낮 12시 30분께 광주시 서구 치평동의 한 6층짜리 빌딩 내 5층 사무실에서 바닥 타일이 잇따라 뒤틀리며 부서지는 사고가 났다. 사무실에 있던 보원사 직원 2명을 포함해 조정업체, 리모델링업체, 장애인단체 등 빌딩 입주자 11명이 긴급 대피했으며, 추가적

인 붕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옹풍기(90cm×80cm) 열 때문에 실내와 바닥 온도차가 생겨 타일이 뒤틀림 것으로 원인을 추정했다. 국토안전관리원 현장조사 결과 건물 바닥에 균열이 발견되지 않았으며 건물 안전성에도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건물은 지난 2003년 준공됐으며 타일 또한 같은 해에 시공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서구는 2차 안전 점검을 한 뒤 결과에 따라 행정처분 등 추가조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장성토지 매매 (분양)

- ▶ 장성댐 5분 (광주에서 20분)
- ▶ 즉시 건축 가능 (토목공사 완료)
- ▶ 공기최고 (촉사없음), 소나무 숲
- ▶ 장성댐, 등산로 (남동향)

100평, 150평, 200평, 700평 (분할 가능)



해누리 전원토지분양 (상오2안)



010-6670-9800

### 경매교육 [특수 전문반]

\* 경매 실전 전문반 모집 (10명)

- 1) 기초반 (기초부터 실전)
- 2) 중급반 (실전부터 ~)
- 3) 특수반 (유치권, 법지, 지분)
- 4) 투자반 (투자가능한분)

▶ 경매 물건 추천 ◀

북구 두암동 (상가주택) ▶	감정가 3억9천 → 최저가 3억9천
남구 임암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5억1,600만 → 최저가 2억8,800만
서구 매월동 (자동차상가)7층 ▶	감정가 6억2,600 → 최저가 4억3,800
광산구우산동 (근린상가)2층 ▶	감정가 6억1,700 → 최저가 2억7,600
광산구소촌동 (대지)41평 ▶	감정가 6억5,400 → 최저가 6억5,400
북구우산동 (주택) ▶	감정가 1억4천 → 최저가 8천300만
서구화정동 (주택) ▶	감정가 1억8,500원 → 최저가 1억2,900
북구운암동 (아파트)복합블록 ▶	감정가 7억7,700원 → 최저가 3억2,300

010-2614-9801